



Contents

- 03 경기도, 3.1절·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04 한국토지신탁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곳
이재명,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어 부실시공도 원천봉쇄
- 07 9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7자리 시대 개막
- 08 봉담코아루, "소액투자자들의 안정적 투자처로 급부상"

한국판 실리콘밸리,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경기도의 쾌거!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

경기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SK하이닉스 용인공장)을 위해 정부가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SK하이닉스의 추가 공장 부지 요청을 받고 이를 만에 수도권 규제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약 448만㎡, 135만평 규모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통과가 결정되면 이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장 건설이 시작된다. 첫 제조공장은 이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공장 총 4개, 50여 개의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가 조성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첫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는 2003년 경기도 파주 LCD 단지과 2007~2009년 평택고덕 단지, 동탄 사례를 끝으로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으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의 쾌거!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



▲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입지를 위해 오랜시간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최대한 행정지원 및 조속한 공사를 약속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조성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부지가 448만㎡에 달하고 향후 12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수원FC 출정식

수원FC 구단주인 염태영 수원 시장이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수원시 프로스포츠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화성시 봉담 투자가 몰리는 이유?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취득, 임대등록시 양도세/종부세 혜택 없음	해당 없음
규제지역 외에도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수도권 6억& 25.7평, 비수도권 3억&30평 이하만 가능	해당 없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 40%적용, 공시 9억 초과 주택은 대출 금지	해당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불가	해당 없음

대표상담전화 **031-893-0297**

▶▶▶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하이닉스의 이전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 향후 계획과 파급효과는 ?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해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대중소기업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핵심 계획 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 용인시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 벌써 지가가 2배 상승하는 등 일대 땅값이 요동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 분위기는?

용인시 원삼면은 SK하이닉스 유치 결

작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는 부동산사무소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용인시 최근 낙후지역이 첨단산업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 백군기 용인시장 “스마트 첨단산업단지 모델로 만들겠다”

정으로 들쭉이고 있다. 지가가 두 배로 뛰고, 부동산 매물이 사라졌다. 부동산 문의 전화만 폭주하고 있다. 그런데 정

조성 지역인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학일리 일원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원삼IC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 때문인지 최근 고당리 원룸 한 동이 평당 400만원 선에서 통으로 매매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땅 값도 급등하는 모양새다. 지역과 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비싸야 3.3㎡당 40만~50만원하던 농지의 호가가 100만원을 넘어섰다. 면 소재지인 고당리 일원은 300만 원 선에서 500만~600만 원대로 올랐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 개발 우려와 향후 대책 마련은?

개발 특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청정 전원지역인 용인 처인구 일원에서 교통체증이 극심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 및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우려를 우려로 끝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열된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사기일당의 조직적 범죄에도 예방 및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사법당국의 상시 감시체제로 기획부동산 등 조직적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이재명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에 대해 “국익 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 판단”이라면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기도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백군기 용인시장 “스마트 첨단산업단지 모델로 만들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반도체특화 클러스터가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입지 용인시를 선택해준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입주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완비해 스마트 첨단산업단지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를 위해 전 세계 클러스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해왔다. 정부와 SK하이닉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용인의 특화 클러스터 성공 사례가 이천시 안성시는 물론 음성 청주 구미 등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곳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의 조속한 통과가 되도록 105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섭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 원삼면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람과 뉴스

www.pnnews.co.kr

발행·편집인 안근학 편집국장 김현섭 편집부국장 송진철 인쇄인 (주)대인프린테크
편집기자 유지현 인턴기자 여송은 프리랜서 곽재근
대표전화 031-681-7117 | FAX 050-4029-9068 | 광고·구독 031-681-7117

등록번호 경기,다50659 | 제1호 2019년2월28 | 발행처 사람과뉴스 신문사
본지는 인터넷 신문(사람과뉴스, 정도일보)의 자매지입니다.
우편으로 받아보시려면 3,500원의 발송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349-0285-31(사람과뉴스 안근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기도, 3.1절·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수원시, 3월1일 수원역·방화수류정서 행진 화성시와 100주년 기념사업 교류·협력

◇ 경기도, 3.1절·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기념식에 머물지 않고 1년 내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역사 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올해 '백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31개 시군과 협력해 연중 내내 도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사업과 공연, 탐방, 전시 등을 진행한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기억, 성찰·발전, 포용·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기념·기억 분야 사업은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항일운동 문화유산조사 및 항일 유적 안내관 등 설치,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속경기, 경기도 3.1운동 기념 웹 모바일 동영상 제작 등 6가지다.

이 중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은 시군이 추진 중인 기념사업에 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해 최근 21개 시군 29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독립운동가 이석영, 파주시 임명애, 여주시 조성환 등 지역 독립운동가를 콘텐츠로 한 뮤지컬 제작, 일제강점기 군수기지(고양시, 현재 30사단 위치), 좌전고개(용인시), 제암리(화성시), 원곡·양성면, 죽산 일대 만세운동지(안성시) 등 항일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등으로 총 2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 수원시, 3월1일 수원역·방화수류정서 행진

수원시는 3월 1일 화성행궁 광장, 시내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문화제를 연다. 기념문화제는 방화수류정과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만세 행진으로 시작된다. 수원지역 3·1운동3·1운동이 시작됐던 방화수류정에서 시민 2천300여명(독립군)이 모여 오후 1시 20분 '3·1운동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한 후 화홍문광장을 지나 행궁광장까지 행진한다.

수원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1천500여명(평화군)이 집결해 12시 30분 '수원소년단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한 뒤 행궁광장까지 행진한 뒤 '독립군'과 '평화군'은 오후 2시 행궁광장에서 만난다.

◇ 수원의 역사적인 3.1 만세 운동

1919년 3월 1일, 수원 방화수류정 일원에서 수백 명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다. 수원 3·1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이었다. 수원지역 3·1운동은 종교인부터 교사, 학생, 소작농, 상인, 노동자, 기생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한 만세 운동이었다.

수원 읍내에서 시작된 수원군(현재 수원·화성·오산)의 만세운동은 화성 발안·우정·장안면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모든 군민이 하나가 돼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수원지역 3·1운동은 그 어느 항쟁지보다 격렬했고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 화성시에서는 동탄북합문문화센터에서 오는 3월 14일까지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전시회를 진행한다. 무료입장이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무료 운영한다.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는 이하영(1870~1952) 목사, 필동 임면수 선생(1874~1930), 김세환(1888~1945), 김향화(1897~?), 이선경(1902~1921) 등이 있다.

◇ 화성시와 100주년 기념사업 교류·협력

수원시는 100년 전 같은 '수원군'에 속해있던 화성시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교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월 7일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만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교류·협력을 약속했고 화성시는 3개 분야에서 40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남한 유일 3·1운동 실력 항쟁지 '안성 만세고개'

안성시 원곡면 철곡리에는 3·1운동 기념탑과 함께 만세고개 언덕이 있다. 이곳은 1919년 4월 1~2일 만세 행렬의 실력항쟁으로 이틀이나 일제 세력을 몰아내고 짧은 해방을 맛봤던 역사가 서린 곳이다.

실력항쟁이란 공공기관 기물파손과 방화 등 실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다른 만세운동과 구별된다. 당시 최은식 선생의 주도로 원곡면사무소 앞에 모였던 1천여 명의 행렬은 "독립 만세"를 외치며 면장과 면서기 등 공무원들까지 밖으로 이끌어내 만세를 부르며 하면서 인접 마을인 양성면까지 걷게 했다.

성은 고개에 도착한 후 주도자 중 한 명인 이유석 선생은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 것은 천운이요. 양성주재소(지금의 경찰 파출소 규모)로 가서 순사들을 끌어내 만세를 부르게 하고 주재소를 불태우시다"라고 소리쳐 실력항쟁을 이



▲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100주년 기념사업 교류·협력을 약속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끌었다. 그들은 양성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던 1천여 명과 합세해 양성경찰관 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불태웠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잡화점과 고리대금업 가게들도 몰아냈다. 그러나 비폭력주의 3·1운동의 취지에 따라 단 한명의 일본인도 해하지 않았다.

만세 행렬의 기세에 양성·원곡면에 있던 일본 경찰, 공무원 등이 모두 인근 지역으로 도피했고, 이들은 짧지만 이른 해방을 맛볼 수 있었다. 현재 이곳에는 안성 3·1운동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안성문화원은 매년 4월 2일 4·1만세 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을 올리고 있다.

김현섭 기자



▲ 수원시에서는 3.1 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창작 뮤지컬 '독립군'을 공연한다.



▲ 안성만세운동 당시 모습을 그린 그림.

한국토지신탁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곳

봉담코아루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산업 이끄는 선두마차



| 토지(개발)신탁 구조



▲ 한국토지신탁의 신탁이란 신탁회사가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즉 모든 건설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

국토지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채권자(계약자) 보호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앤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자금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안정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신탁이란 신탁회사가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즉 모든 건설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한다는 뜻

이다. 이는 사업기획에서부터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건축공사 발주관리 등 건설 및 분양에 관련한 사업 일체를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공사/시행사의 부도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인력을 각 요소요소에 배치 및 운영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전문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여송은 기자



이재명,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어 부실시공도 원천봉쇄

공사계획 사전검토 등 명문화 한 조례 제정 추진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강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부실시공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공공건설의 기획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하게 되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설계자가 건설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마련,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공건설서비스는 건축이나 도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분석, 설계, 감리,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건설업계 반발을 샀던 원가공개와 달리 상호 충돌할 내용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지사가 공사비리 원천봉쇄를 위해 원가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건설 사업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공공건설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의 기획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유지관리 방안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지원 ▲공사발주 관련 기준 및 사례연구, 발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센터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고, 점검 대상은 1억원 이상 사업이다.

김현섭 기자

경기도 노동권 보호 '노동권익센터' 3월 개장

경기도가 도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설치할 추진 중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다음달 말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 설치되는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재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 및 시·군과 노동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도 하며,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7명, 운영 지원 인력 2명 등 1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센터를 북부청사에 설치하게 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재는 대부분 이윤 추구에 매몰돼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데서 시작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시작한다"며 노동회의소 설립·노동이사제 도입 방침과 함께 노동권익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현섭 기자





안스실용음악학원

<http://cafe.daum.net/6650970>



색소폰 전문학원

평택시 송탄점, 안중점

상담대표전화 **031-665-0970**

최해선 부회장, '2019 한국을 빛낸 사람들' 언론발전공로 대상 수상

“소신을 갖고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 준 분들에게 감사”

최해선(59세) 한국기독교실업인 경기북부 부회장이 경기도 및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언론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수상식은 대상 조직위원회,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의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등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을 매년 선정해 표창을 하고 있다.

최해선 부회장은 전)일간투데이 제2사회부 부장과 전)경인종합일보 사회부 부국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집필과

지역현안을 심층있게 보도 해왔다.

또한 평소 정론직필 언론관을 견지하며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재인폭포 살리기 운동, 접경지역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피해개선과 군부대 위문, 연천 꿈나무 돕기 행사 등을 주관하는 등 추진력을 발휘했다.

최해선 부회장은 “수상의 영광을 정론직필의 언론관을 가지고 소신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현섭 기자



▲ 최해선 한국기독교실업인 경기북부 부회장이 지난 21일 '2019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언론발전공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능성 쌀 '오색미', 맛과 영양가 높아 소비자 인기

평택시 가족행복농원 김순영 대표 '신용으로 일군 20년'

최근 맛과 영양이 좋은 흑미, 녹미 등 기능성 쌀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가족행복농원 김순영 대표의 '오색미'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색깔에 영양 성분의 함유량까지 높아 웰빙 시대의 맞춤형 쌀로 인식되고 있다.

김순영 대표는 1만여평에서 흑미·황금미(가바)·설향·녹미·향찰쌀 등 일명 '오색미'로 불리는 기능성 쌀을 20년째 재배하고 있다.

특히 흑미는 안토시아닌이 검은콩보다 4배가 높고, 빈혈과 심혈관 질환에 좋다. 녹미는 비타민과 아연 등의 함유량이 높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디톡스 효과를 통해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황금미(가바)는 탄닌에 의한 항균 항산화 작용이 강해 노화방지와 항암효과에 좋은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향찰쌀은 구수한 향이 특징이다.

농법 역시 한방 엑기스를 직접 만들어 살포하는데 한방 약재인 당귀, 계피,



▲ 기능성 쌀 '오색미' 홍보 및 판매를 하는 평택시 가족행복농원 김순영 대표 부부. 최근 맛과 영양가가 높은 기능성 쌀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감초 등을 막걸리 향내로 누룩에 발효시켜 벼에 분무해 쌀 품질을 높이고 있다. 판매는 1년내내 직거래 주문으로 판매되는데 매년 완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고쌀도 없다.

김순영 대표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쌀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생각한 것이 기능성쌀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을 인정하면서 웰빙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김순영 대표(010-6668-4982)로 하면 된다.

안근학 기자

성원글로벌, '씹는가그린(립랩 가글정)' 신제품 출시

심승보 대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 해소 기대"

성원글로벌(대표 심승보)에서 8년 연구 끝에 물 없이 씹는 립랩 가글정(씹는 가그린)을 개발 및 특허 출시했다.

립랩 가글정은 그간 부피를 많이 차지해 휴대하기 불편하고 기내반입이 안되는 기존에 사용하던 액체 가그린 대신, 휴대하기 간편하고 기내반입이 되는 알약(고체) 형태로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타민C, 키토산, 죽염, 카모마일 파우더로 구성된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로는 대표적으로 충치예방, 구취 제거, 구강청정을 기대 할 수 있다. 제

품 사용 원리는 립랩 가글정 알약을 씹으면 거품과 물이 나오고, 이 거품과 물로 입을 헹구면 된다. 취향에 따라 벨은 후 물로 헹구도 된다.

심승보 대표는 "이 아이템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논란 성분인 CMIT, MIT, 합성계면활성제, 파라벤, 광물성 오일, 향생제(트리클로산), 마이크로 비즈, 동물성 원료, 타르색소, 사카린, 에탄올 등을 일체 제외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유지현 기자



▲ 휴대가 간단하고 외국여행 중 소지할 수 있는 '씹는 가그린(립랩 가글정)'이 8년 연구 끝에 개발됐다.

9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7자리 시대 개막

하얀색판에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삽입

자동차수 등록 증가로 자동차 번호가 현행 6자리에서 7자리로 늘어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홀로그램도 삽입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올 해 9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은 현재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에서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 형태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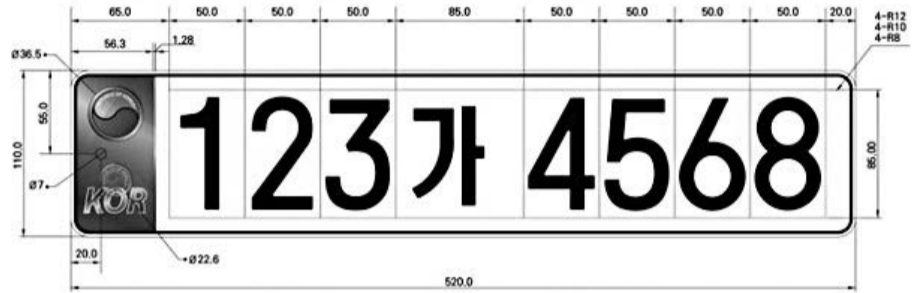
현행 번호체계로는 2200만대의 자동차를 표시할 수 있는데, 바뀐 번호체계

는 2억개 이상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차량 용도에 따라 119, 112 같은 특수번호를 앞자리 번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디자인도 바뀐다. 바탕색은 지금까지 흰색이지만 왼쪽에 태극문양과 대한민국 축약영문인 'KOR'이 들어간 청색 홀로그램이 추가된다. 글씨체와 글자색은 변동없이 유지된다.

새 번호판은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 검토, 공청회, 국민 선호도 조사, 공공디자인



▲ 자동차 번호판이 오는 9월1일부터 7자리로 바뀌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을 삽입한다.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작년 말 결정됐다.

김현섭 기자

하룻밤 남성 '미투 협박' 30대녀 실형 8개월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내 범행이 양형 이유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성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에서 만난 남성 B(28)씨에게 술 한 잔하자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와 술

을 마신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B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하고 B씨의 사진을 찍어두었다.

문제는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A씨는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며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해 결국 50만원을 챙겨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섭 기자

경기선관위, 금품 제공 현직 조합장 등 4명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포천시 관내 현직 조합장 A씨 등 4명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포천시선관위에서는 현직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파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포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총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C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를 지난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현재 4건을 고발하고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모두 1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지적장애인끼리 서로 때리게 하고 촬영한 '넌나간 재활교사들'

오산경찰서, "폭행 가담 교사 한 명 더 추가 고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서로 때리게 시켰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추가로 교사 1명이 더 고발됐다.

지난 21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재활원은 이날 장애인

들을 서로 때리게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활교사 김모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재활원 내에서 장애인 4명을 서로 때리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에서 이 같은 강요를 하고, 장애

인끼리 서로 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활원 내 CCTV 등을 확보해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면서도 “김씨 등이 범행 사실이 인정하고 있어 수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경찰서는 이들 3명 외 재활교사 최 모 씨에 대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학대 영상을 촬영한 재활교사 김 모 씨로부터 영상을 받아보는 등 방조 혐의 외에도 학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고발됐다.

김현섭 기자



▲ 오산경찰서 전경

봉담코아루, “소액투자자들의 안정적 투자처로 급부상”

최고의 시설 갖춘 지상 23층, 지역 랜드마크 자리매김 기대
2월 28일 홍보관(수원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그랜드 오픈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26-11의 7필지'에 짓고 있는 '봉담코아루 카보드 ZOOM시티(지상 23층, 도시형생활주택 288세대, 오피스텔 36실 총 324세대)'가 소액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투자 안정성과 꾸준한 임대수요를 누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한 오피스텔 등은 투자 가치가 높아 더욱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봉담코아루'는 도보 10분 거리의 장안대와 협성대가 바로 인접해 있다. 또 인근에는 수원대가 자리하고 있어 안정적, 독보적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기대된다. 트리플렉스권에 속한 3개 대학 재학생수의 2017년 통계를 보면 장안대 8,831명, 협성대 5,880명, 수원대 1만3,757명으로 지역에 끊임 없는 임대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화성시 소재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학가 인근은 주거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기숙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학가 주거 상품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최근 '봉담코아루' 단지 조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봉담코아루'는 수원과학대

수요환경분석 인근 대학 및 산업단지

• 봉담읍 1인가구, 산업단지 종사자, 인근 대학교 재학생 등 임대수요 약 5만여명



▲ 화성시 봉담읍은 인근 장안대, 협성대 등 재학생 수만 2만8천여명이 되는 등 인접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임대수요가 약 5만명에 달한다.

학교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두터운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또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춰 단지 약 150m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봉담IC 진입도 편리

하다.

또 수인선 연장선인 봉담역(2019년 예정)이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43번 국도 지하차도가 올해 초 개통예정이라 교통환경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갖춰 봉담 CGV(준공예정), 한마음마트, 롯데슈퍼, 봉담읍사무소, 화성시립 봉담도서관 등이 가까우며 봉담호수공원, 화성시 체육센터, 동화마을 생태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못지 않은 특화설계도 적용돼 경쟁력을 갖췄다. 총 23층 높이로 일대를 아우르는 '봉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상 1층~5층에는 주차장이 배치돼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하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저층 상업시설, 휘트니스센터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이 외 1인 가구 및 여성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CCTV 164대가 건물 내에 설치된다.

한편, '봉담코아루'의 홍보관(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5번지)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마련됐으며, 오는 2월 28(목)일 그랜드 오픈을 개최한다. 대표 상담전화(1668-4924).



▲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봉담코아루 카보드 ZOOM시티'가 오는 2월 28일 그랜드오픈을 한다.

김현설 기자

한국토지신탁 

장안대 협성대 수원대 와 나란히!

원스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트리플 학세권 원더풀 생활권

대학생 임대수요 넘쳐나는 화성 봉담의 23층 랜드마크 소형 투자상품을 만나십시오.

봉담 코아루 카보드 ZOOM 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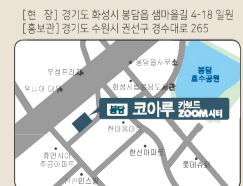


한국토지신탁 전속모델
이민정

스케일이 다른 23층 랜드마크 소형 투자상품! 봉담 코아루 카보드 ZOOM 시티

봉담 KOAROO 카보드 ZOOM 시티

- Invest** 풍부한 대학생 임대수요
- Speed** 봉담 IC 등 쾌속교통망
- Life** 완벽한 생활 인프라
- Plan** 혁신설계와 커뮤니티



총 324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88세대 / 오피스텔 36실 시행 한국토지신탁  사공 DAECHANG  위탁 광덕디앤씨(주) 대표상담전화 1668-4924

*부동산개발업자: (주)한국토지신탁, 서울시08000108 *주요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공급대상물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리 26-11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도: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계약면적: 1,061㎡ *건축면적: 15,276㎡ *용적률: 799.45% *건폐율: 76.03% *건축허가(시업승인번호): 2018-건국과-건축가-377 *시행사: (주)한국토지신탁 *시공사: 대창(주) *위탁사: 광덕디앤씨(주) *분양내역: 분양대금관리법
:대한토지신탁의 지역권리 *시업일정: 2018년 11월 26일 착공 / 2019년 1월 분양예정 / 2021년 1월 준공예정 *대차소유권 확보여부: 100% *매입: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잔금 환산시 지원금: *상기 세입자는 최종 인 · 허가 내용에 따라 면적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CG로서 실제 사진 및 인 · 허가 과정에서 색인, 입면, 디자인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거리표기는 네이버 지도기준 직선거리이며, 소요시간은 네이버 지도검색(항일 오후 2시, 실시간 교통정보 포함)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본 홍보물의 개발계획, 교통계획 등은 해당사업 관련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사항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유관합니다. *본 홍보물은 판단 및 이해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계획물에 표기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6조 사항) 등은 모델명세서에 당락지 및 상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뉴스 창간사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사람과뉴스
안근학 대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본지 '사람과뉴스(People & News)'의 창간 소식을 전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지는 제호가 말하듯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희노애락을 담은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고 사람의 일이고 사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회나 문화, 경제 역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입니다. 결국 기자의 모든 취재 활동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과뉴스 창간호를 발간 및 발행을 하며 독자 여러분들께 3가지 약속을 감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달하는 신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애환에 귀 기울이며 일보 전진하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대변지로 성장하겠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밝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불편부당 정론직필의 사훈을 견지하며 일희일비 않고 회사를 키우겠습니다. 좋은 신문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창간의 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수원순복음교회 **이범헌** 장로



'복의 영적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영적의미는 무엇이며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복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복은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루며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성경말씀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며 영적 교통이 이루어 질 때 곧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마귀의 근성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갈 수 없다.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할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돼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 나의 마음 속 죄가 나를 사로잡고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면 시간과 물질과 정신을 그것에 빼앗기며 소진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면 마귀 사탄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나 위험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복이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에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마시며 보이는 것에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맞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란 본래 사람의 지으신 의도대로 생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보다 자기 안의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 내 자아가 날마다 죽게 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게 '화'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게 '복'이 된다.

[김현섭 칼럼]

문재인 정부의 규제역 위기관리 능력을 칭찬 한다



김현섭 편집국장

드디어 오늘 25일 자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최단 기간인 28일 만의 규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완전 해제를 바라보며 한시름을 놓은 축산농가, 방제방역공무원, 국민들의 환호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간 너무 애썼다. 모든 국민들의 단합된 위기극복 노력을 축하하고 감사하다.

이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규제역 위기 단계는 기존의 '경계'에서 '주의'로 내렸다. 하지만 3월말까지는 연장된 규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해 가기로 했

다. 지난 15일 아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을 향해 "규제역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 14일이 어제 끝났기 때문. 방역에 임하신 모든 분의 수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힌 지 10일 만의 기쁜 소식이다. 생각해 보면 10일이 지난 오늘 25일은 '선진 축산으로의 발전'을 약속했던 이낙연 총리의 다짐, 그 첫발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노고가 오늘의 기쁜 결과를 만들었다.

2년 만에 발생한 이번 규제역은 지난 1월 28일과 29일 경기 안성, 31일 충북 충주 등 모두 3곳에서 발생했다. 발생 이후 정부는 즉각적으로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등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지난 14일까지

더 이상의 규제역 추가 발생이 없었다. 규제역 확산 여부를 평가할 중대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난 것이다. 이후 10일이 지난 25일 현재까지 추가 발병이나 확진이 없다. 규제역 완전 종료 선언으로 보아도 되는 이동제한 해제이다.

그리고 이번 규제역 발생에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이 큰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는 축산 농가와 공무원, 국민들이 규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펼친 결과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살신성인적 헌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정부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달 가량을 더 지켜보아야 한다.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계속 방역 업무에 종사해야 하지만, 국민 모두 한 마음 한뜻으로 규제역을 조기 극복했으니 당당하게 규제역 청정국가로

의 복귀와 지속, 그 미래를 설계할 시점이 왔다. 정부와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축산정책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백신개발 등을 통해 규제역 청정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 길이 보이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권당시 초기대응에 미흡해 발생한 AI와 규제역 발생 이후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생각하면 이제는 규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고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이번 규제역 피해를 최소화한 축산농가를 위로하고, 그 피해 규제역을 상향 조정하자. 또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기쁨을 주자.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유익균의 혁명을 주도할 '해피랑 온가족 유산균' 출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 평소 건강관리를 해야

GHL해피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해피랑 온가족 혼합 유산균' 개발에 성공해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산균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내 환경개선을 목표로 대변의 색상, 모양, 냄새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유익균의 증식과 번식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즉 소장의 대표균주인 락토바실러스균과 대장의 대표균주인 비피더스균주 위주로 19종의 유익균주와 유익균주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장운동과 장 청소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식이성 섬유' 그리고 비타민 D, B군, 아연 등을 처방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장내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 위산과 담즙산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소장, 대장까지 도달했을 때 장에서 증식하고 정착 번식해 장관 내에서 유용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몸속에서 독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병원성까지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장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기산을 분비해 유해균을 억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장운동을 자극해 변비와 숙변을 개선하며 우리 몸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며 장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장은 체내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 약 70%가 집중돼 있는 기관으로 장 질환 또는 장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 면역 물질 분비를 활성화해 외부에서부터 유입되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의 침입에 대한 염증 억제의 면역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장에서 약 90%이상 생성돼 제2의 뇌, 즉 복 뇌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은 단순



▲ 장이 건강해야 속이 건강해진다. GHL해피랑이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해피랑 온가족 혼합 유산균' 개발에 성공해 제품을 출시했다.

히 장 건강을 넘어서 과생적으로 유익한 효능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는 GHL해피랑 본사(1811-8088) 또는 허지수 이사(010-6341-5765)로 하면 된다.

김현섭 기자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에 6억4000만원 지원

3월27일 까지 경기영상위 홈페이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성 영화 제작비를 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

다양성영화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을 지칭하는 말로 제작·배급·상영 규모가 작은 영화를 말한다.

도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까지 올해 '2019년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투

자지원' 사업에 참가할 작품을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를 통해 모집한다.

공모는 일반부문과 경기도 특별부문으로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장르와 상관없이 예정돼 있거나 제작 중인 장편 다양성영화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부문은 경기도가 주요 소재이거나 경기도 촬영분량이 70% 이상인 작품이면 된다.

두 부문 모두 순제작비가 10억 원 이

하인 다양성영화(다큐멘터리 제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제작이 완료돼야 한다. 총 지원금액은 6억4천만 원으로 서류 및 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최대 1억 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전화 문의는 영상산업팀(032-623-8052)으로 하면 된다.

안근학 기자

양평군립미술관,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기획 작품전

양평군립미술관에서 2019년 봄 프로젝트로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20C 세계명작관화와 한국현대관화전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3월 8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작품전은 근현대 관화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여송은 기자

과천시 추사박물관, '추사의 성북동 나들이' 특별전시회

윤진구 관장 "서울 사립미술관과 연계한 첫 특별전"

과천시 추사박물관(관장 윤진구)이 지난 22일 성북동에 위치한 리얼아트 갤러리와 연계한 특별전시회 '추사의 성북동 나들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24일까지 개최한다.

23일 추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과천시 추사박물관이 외부에서 개최하는 첫 전시회인 동시에, 사립미술관인 리얼아트갤러리와 협업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1부 '추사박물관이 걸어온 길', 2부 '추사의 글씨'로 구성된다. 전시유물로는 '제주시절 추사의 편지'와 '우선 이상직에게 보낸 편지' 등 4점과 '윤주비(尹宙碑) 입모' 사진인화본, '원

사헌진적' 제첩, '성담상계' 탁본 등 주로 추사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선을 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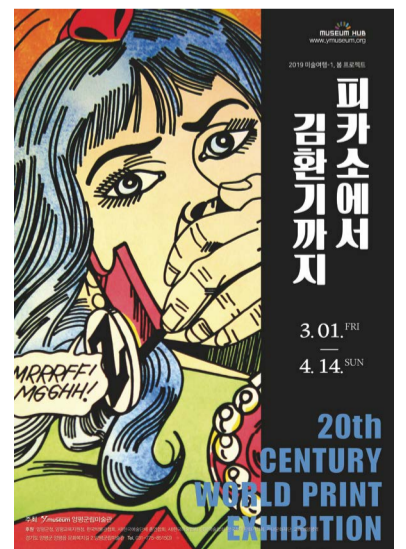
한편, 2013년 개관한 추사박물관은

그간 10번의 특별전을 개최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유지현 기자



▲ 과천시 추사박물관은 3월 24일까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리얼아트갤러리와 연계한 특별전시회 '추사의 성북동 나들이'를 개최한다.



▲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명작관화전.

도의회 용인상담소, '학교 교육행정 지원' 간담회

업교섭 도의원 "학교 현장 일반직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업교섭 의원(더민주, 용인2)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해정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 현황 및 일반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이해정 위원장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직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업무 폭증으로 인한 교육지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교육행정직 정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고질적인 인사논란,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보안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재한 만큼,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행정업무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제도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업교섭 의원이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현황 및 일반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업교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행정직의 역할에 대한 이

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의 처우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기자

조도연 교육장 "교복구입 부담은 줄이고, 환경사랑은 높이고"

평택교육지원청-녹색나눔터, 교복물려주기 행사 성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과 녹색나눔터(평택녹색소비자연대)는 21~22일 양일간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지출을 경감하고, 물자 절약 및 재활용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복은행 위탁운영기관인 평택녹색소비자연대는 평택교육지원청의 지원하에 접수된 중고 교복을 세탁·수선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교복물려주기 행사에 방문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신입생뿐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조도연 교육장은 "이번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학부모님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직접 체험하는 등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는 뜻깊은 경험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현 기자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녹색나눔터는 21~22일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성남시 고교 신입생 9500명에 교복비 30만원 지원

성남시가 올해 고교 신입생 9500명에게 한명 당 3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자체 사업비 28억5천만원을 마련했다.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북 21만4000원, 하북 8만6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며, 배정된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은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해당 학교를 통해 교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관외 고등학교, 관내·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안근학 기자

경기도교육청, 최고 2억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 상담·지도 등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을 보장하고,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 때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해 사고 당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 가입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이고, 보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의 교원으로 모두 12만 명이다. 계약제 교사도 포함되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김현섭 기자

경기도, 올해 저소득층에 공공임대주택 4만1천가구 공급

임대보증금 및 주거급여 등도 지원... "주거복지 사각 해소"

경기도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20일 도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4만1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만9천여 가구는 건설해 공급하고, 나머지 1만2천 가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뒤 재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신규가입자 2천330가구

에는 주거복지기금을 활용,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도는 또 국비를 포함해 올해 3천672억원을 투자해 중위소득 44%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165만원 이하) 21만4천여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33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5억6천여만원을 들여 놓어준 저소득층 주택 38개 및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 110개 등 모두 148가구에 가구당 380만

원의 주택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도는 아울러 저소득층의 민간임대주택 입주 시 전세금 대출 보증료와 대출 이자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벽체 및 창호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하는 햇살 하우스 사업을 펼친다

민간단체가 재능 기부로 노후주택을

무료 개·보수 해주는 G-하우스 사업에도 저소득층 가정 110가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각종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다음달 중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도 설치한다.

이 센터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상담 및 지원, 도의 주거복지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안근학 기자

안양시, 청년층 주거복지 시동

청년층주거시설,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 들어선다.

안양시가 지난 19일 관양고 주변지구(관양동 521 일원/157,087㎡)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청년주거시설 지원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금년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3년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7,087㎡부지에는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1,321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중 일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시는 그동안 관양고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관악산등산로를 연계하는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뒷



▲ 안양시 관양고 주변지구(관양동 521 일원/157,087㎡)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서 이 지역에 청년주거시설 지원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섭 기자

포천청소년문화의집, '과학과 애니메이션의 만남' 행사

포천시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지난 23일,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에서 2월 주말전문체험활동 '과학과 애니메이션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애니메이션을 창작 제작해보는 창의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휴머노이드 코딩 로봇 체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미래 기술과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가 청소년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였다."며 과학기술 발달에 놀라워하며 즐거워했다.

동행한 시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처럼 청소년들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융합교육인 STEAM 교육



▲ 포천시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지난 23일,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에서 '과학과 애니메이션의 만남'을 진행했다.

을 쉽게 접하고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과 후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 생활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포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인성을 바탕으로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유지현 기자

평택시 생활민원SOS팀은 '만능 해결사'

평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SOS팀이 '만능 해결사'로 불리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 가정 내 환풍등이나 콘센트, 스위치 보수,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수리 등생활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재료비 10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 등의 생활불편사항은 30만원 이내로 무상수리해 주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돕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수혜자가 정보 부재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거나, 전화(031-8024-505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지현 기자



▲ '평택시 생활민원 SOS팀'이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 고장난 싱크대 수리를 수리해주고 있다.

화성시, 4월 '행복화성지역화폐' 첫 발행

추후 모바일 지역화폐도 도입 예정

화성시가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132억 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계가 구축되면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정책수당 112억원은 청년배당 78억4천만원, 산후조리비 31억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5천만원 등이다.

일반발행분 구매한도는 1인당 50만원으로 구매 시 6%의 상시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 화성시가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발행기념으로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을 해 주며 명절 등에도 10% 추가 충전을 해 준다는 계획이다.

카드 발행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무료발급 예정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

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가맹점 입구마다 지역화폐 사용가능 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인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

장안사랑발전회, 3.1운동 상징물 건립 위해 550만원 전달

수원시 장안구 장안사랑발전회는 지난 22일 장안구청장 집무실에서 박충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 기금 550만원을 장안구청에 전달했다.

박충규 회장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건국의 원천은 3.1운동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날의 역사적인 순간을 장안구민과 함께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 받은 기금은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전달해 3.1운동을 기념하는 상징물 건립 등에 쓰여지게 되며, 상징물은 오는 8월 15일(광복절)에 준공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



▲ 수원시 장안사랑발전회 박충규 회장 등 임원진은 장안구청장 집무실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 기금 550만원을 전달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 백미 1,600kg 기부

매년 마음을 담은 선행, 소외된 이웃의 참 벗

평택시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대표 이상배)과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지회장 김현제)는 지난 22일 안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백미(10kg 160포)를 전달했다.

평소 이상배 대표와 김현제 지회장은 안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꾸준한 사회적 참여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는 물론 읍민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상배 대표와 김현제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노고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으며,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계 읍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신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과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정성 가득한 물품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지현 기자



▲ 평택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백미 1,600kg(10kg 160포)를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안성 바우덕이 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 선정

안성시 대표축제인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지난 22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7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글로벌 명품축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한국축제콘텐츠 대상은 지난 2012년 제1회 이후 매년 전국 각지에서 치러지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정체성과 발전 정도, 지역 문화발전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이 상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소개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바우덕이축제는 지난해 경기도 대표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글로벌 명품축제 선정으로 명실



▲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지난 22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7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에서 글로벌 명품축제로 선정됐다.

상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매력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생각을 바꿔 변화를 추구한다는 시정목표가 지난해 축제에도 반영됨으로써 좋은 평가와 결과

를 가져온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다채로운 콘텐츠 도입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바우덕이축제를 매력적인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수원시 이주배경 청소년, '다섯손가락'과 농촌체험

권찬호 국장 "건강한 성장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수원시에 사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삼성전기 봉사단 '다섯손가락'이 함께 딸기를 따고, 맛보는 농촌체험행사가 열렸다.

수원시는 23일 권선구 금곡동(금곡로 28) 정수농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40여 명과 삼성전기 봉사단 '다섯손가락' 20여 명이 참여하는 농촌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다섯손가락 봉사자들과 함께 일일 가족이 돼 제철을 맞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면서 딸기 재배과정을 배웠다.

이날 참여한 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처음 딸기를 따봤는데 신기하고 재밌었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성전기 봉사단 '다섯손가락'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내 가족봉사단이다. 2016년 5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개관부터 현재까지 매달 한 차례 수원시와 함께 정기 봉사활동을 한다.

한편 이날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센터 회의실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는 'YOU&I 멘토링' 발대식이 개최됐다.

'YOU&I' 멘토링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만 9세~24세)과 지역사회 내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일대일로 매칭돼, 매주 1회씩 만나 학습(한국어, 영어)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이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 삼성전기 봉사단 '다섯손가락'이 수원시에 사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함께 농촌체험행사를 가졌다.

화성시, 한림대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

경기 화성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성실납세자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한림대학교와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처음 추진됐다.

한림대병원 측은 성실납세자에게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 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해 준다.

지원대상은 개인은 성실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이다.

성실납세자는 연 1회 시 자체 선정

자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법인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개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고,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중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 가능하다.

김현섭 기자

“도의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빠른시간내 전용 공간 마련 노력”

김원기 부의장,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부의장은 지난 21일, 의정부2동 구성타워에서 열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식'에 참석(사진)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종록)은 1994년 11월 개관 이래 25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연인원 2만4464명(일일 4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다형복지관으로 강좌 추가 신설이나 수강인원 증가의 욕구가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원기 부의장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축하드린다”면서 “현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도의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하루 빨리 전용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수원시 장안사랑발전회 박종규 회장 등 임원진은 장안구청장 집무실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 기금 550만원을 전달했다.

하겠습니다”고 축하 인사를 밝혔다.

이에 최종록 관장은 “복지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이영봉 의원께서 어르신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며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1회 사용하고 있는 구성타워 15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12월까지 주4회 어학반, 미술반, 사진반, 스마트폰반 등 총15개 강좌가 제2교육장에서 운영되며 400명의 어르신이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현섭 기자

화성인이 놀랄

봉담의 23층 랜드마크

분양가 10%만 있으면 나도 건물주님

주거용 임대공급 절대부족!

트리플 학세권
원더풀 생활권

장안대, 협성대, 수원대와 나란히!
원스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2021년3월 입주예정



장안대학교

- 장안대학교 재학생 8,831명
- 산업단지 종사자 15,000명
- 협성대학교 재학생 5,880명
- 봉담읍 1인가구 7,600명
- 수원대학교 재학생 13,757명
- 인근대학교 재학생 28,000명
- 봉담읍 인구 20~50대 61.1%



협성대학교



수원대학교

코아루 앞에
투자의 즐거움이
줄을 잇다



원스톱 수요

인근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수원대로
통하는 풍부한 대학생 임대수요 및
시립도서관 인접

원스톱 생활

봉담CGV(준공예정), 한아름 마트,
롯데슈퍼, 봉담읍사무소 등
생활편의시설 위치

원스톱 교통

약 150m 앞 버스정류장, 봉담IC,
수인선연장선봉담역(예정)

원스톱 투자

인근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임대 수요까지 흡수 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성공투자상품

- 취득세 면제 전용60㎡이하
- LTV40%규제 해당없음
- 재산세 면제 전용40㎡이하
- 분양가10% 투자OK
- 전매제한 없음
- 중도금 무이자
- 주택미포함 20㎡이하
- 봉담최대164대CCTV
- 부가세 면세,비과세
- 지상 주차장 5층까지

호행지구 8만평
문화예술타운, 공원조성

봉담 KOAROO 카노드 ZOOM 시티

대표상담전화

031-893-0297